

축구 선수군에서 발생한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압박 강선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후 운동 복귀 시기 결정

Determining Time of Return to the Field after Operation Using Compressive Wire of the Fifth Metatarsal Base in Soccer Players

을지대학교 노원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

이경태 · 양기원 · 박신이 · 이영구 · 이상혁

❖ 서론

축구 선수군에서 발생한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 후 운동 복귀 시기 결정 및 운동 복귀 후 재골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.

❖ 대상 및 방법

제5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로 수술 받은 50명의 남자 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. 수술은 두 개의 피질골 나사를 골절 부위의 원위 및 근위에 각각 삽입하고 정복 겹자를 이용하여 골절부위를 압박한 후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. 통증 및 압박의 소실 여부 및 단순 방사선,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유합 여부를 평가하고 복귀시기를 결정하였다.

❖ 결과

수술 받을 당시의 환자의 평균 나이는 19.3 (14-26)세였고, 운동 복귀 시기는 11.3 (8-15)주였다. 추시 기간은 16.4 (10-30)개월이었고 이 기간에 재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6 (12%)명이었고 5명은 2개월 이내에, 나머지 한명은 수술 후 6개월째에 재골절이 발생하였다. 추시 기간 중 재골절 이외의 다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재골절된 환자들도 보존적 치료 후에 운동에 복귀하였다.

❖ 결론

제5 중족골 기저부의 골절에 대해 수술 후 운동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산화 단층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완전 골유합을 확인했다라도 운동 복귀 후 조기에 심한 재활 및 운동을 한다면 재골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